

수능 끝, 수험생 첫 인생설계 시작

입시설명회·콜센터·대면 상담 등 프로그램 봇물

대입 정식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입시 설명회, 상담 콜센터, 대면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대입 정식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다음달 대입 정시모집 지원전략 입시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내달 23일에 개최되는 설명회가 사

실상 마지막 대규모 입시 설명회다. 진학전문가들의 직접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대면 상담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내달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도교육청 7층 진학지도지원실에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으며 수능성적표를 지참해 상담을 하면 된다.

군산과 익산 소재 수험생들을 위해

선 12월 28일, 29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해당교육지원청에서 이 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입상담 콜센터(1600-1615)를 운영 중이며 대학진학정보 홈페이지(uni.jbc.go.kr)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전라북도 수능 2교시 결사율은 19,614명 중 2,012명이 결시해 10.26%로 나타났다. 지난해 2교시 결사율은 8.64%였다.

전북지역 최고령 수험생은 64세 남성 김모씨로 배영고에서 응시하고 있으며 최연소 수험생은 15세 강모 군으로 군산제일고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한편 남겨진 수능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 12일: 수능성적 통지 △12월 22일: 수시 합격자 발표 △2018년 1월 6일~ 1월 9일: 정시 원서 접수 △2018년 2월6일: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 종료. /정해는 기자



“와~ 첫눈이다!” 전주 지역에 첫 눈이 내린 23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동장에서 원아들이 내리는 눈을 맞이하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교육 받은 장애아동 인식 46.1→62.1% 변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과·운영보고회 개최 참여교사 만족도 97.1%로 매우 높아 긍정적 영향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본)는 23일 센터 교육장에서 올 한 해 추진해온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에 대한 성과 및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인식 및 성적권리를 위해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학교 특수학급 10그룹 장애 아동·청소년 69명을 대상으로 10회 가씩 총 100회의 교육을 진행, 연인원 638명의 장애 아동·청소년이 성인권 교육을 받았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교육을 받은 장애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조사한 결과, 사전 46.1%에 불과했던 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62.1%로 16%p 상승해 이번 교육이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식변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도 97.1%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심기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성교육 기회가 부족한 장애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과 일방적 주입식 성교육이 아닌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알고 표현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과 관계맺음을 위한 성인권 교육의 기회가 됐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 성적 권리에 대해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성인권 교육이 지속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www.jbc.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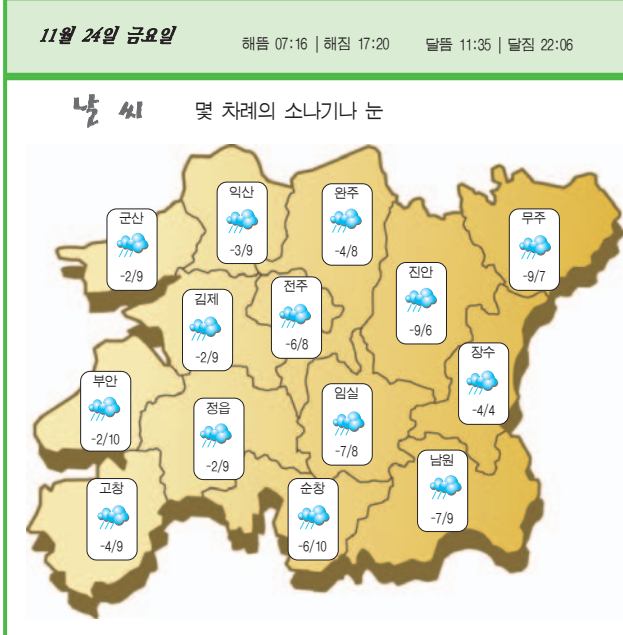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화이팅!”

김승환 교육감 시험장서 응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치러진 23일 오전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라고에 도착한 김 교육감은 다소 쌀쌀한 기온에도 교문에 서서 수험생들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장에 속속 도착하는 수험생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따뜻하게 응원했다.

김 교육감은 “포항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용감했다”면서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실천처럼, 실전을 연습처럼’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시험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내 온도, 환기 등 시험실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으로 돌아와서도 곧바로 수능종합상황실을 찾아 상황 설명을 들었다. /정해는 기자

전북대 RC 체험 학생들, 국궁대회 입상 쾌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모범생을 넘어선 모험인재를 키우기 위해 적극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레지덴셜 칼리지(이하 RC)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것을 체험하게 하며 실제 성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레지덴셜칼리지는 낮에는 학과에서 공부하고 밤과 후에는 기숙사에서 열역학로 다양한 비교과과목들을 듣거나 체험하게 하는 전북대만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 R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궁을 배

우고 있는 동아리 학생들이 최근 열린 제3회 육군사관학교장기 대학생 국궁대회에 출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업 중에 틈틈이 배운 것을 대회에서 펼쳐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전한 전북대 RC 학생들은 19개 팀 300여 명이 자웅을 겨룬 이 대회에서, 여자부 근사(30m, 45m, 60m) 부문에서 최유진 학생이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단체 정규사(145m)에서 강병관·고기훈·황인광 학생이 5위를 차지했다. /정해는 기자